

학부(과)	항공전자정보공학부	학번	2020	성명	민0
제목	ChatGPT를 활용해 완벽한 영문으로 거듭나기				
○ 에세이 작성 동기(추천 이유 등)					
<p>2024년도 새로 개설된 교양과목인 &lt;챗GPT와 영어 활용&gt;을 수강하였다. 강의 중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과제 혹은 학습을 함에 있어 ChatGPT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셨다. 물론 본인의 편의만을 위해 GPT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에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ChatGPT를 활용하면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과목을 수강하였다. 이번 강의를 통해 나는 GPT를 활용해 영어로 다양한 글을 작성하는 법 및 완벽한 글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또한, GPT를 활용하며 영어 글쓰기를 함에 있어 논리적 사고력과 문장 구성력이 함께 발전했으며, 이는 다른 학습 분야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GPT를 더 효과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과 배움을 공유하고자 이 에세이를 작성하게 되었다.</p>					
○ 학습법 등 Tip 세부 내용(실제 학습 방법, 적용 사례 등)					
<p>ChatGPT는 2020년대부터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점점 발전하고 있는 AI Tool이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대중화된 모델이기에 모두가 이미 한 번쯤은 접해봤겠지만, 내가 글쓰기에 활용한 ChatGPT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면, 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줄임말이다. 말 그대로, 이는 채팅의 형태로 구현된 사전 학습된 자료를 통해 예측하여 답을 내놓는 AI Tool이다. 글을 쓸 때 사람들은 ChatGPT를 많이 사용한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편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강의를 수강하며 깨달은 점은 ChatGPT의 글쓰기 능력이 영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p> <p>실제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SAT Reading&amp;Writing 영역에서 GPT-4는 응시자 중에서 상위 93번째 백분위 수에 속하였지만, 대학원 진학 시험의 Essay 영역에서는 54 백분위 수라는 성적을 받았다. 이는 글을 쓸 때 GPT에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을 요청하였을 때 완성도가 떨어지는 글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글을 쓸 때 GPT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까? 답은 NO이다. 핵심은 처음부터 GPT에 “이런 글을 작성할 건데 다 써줘” 라고 요청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직접 고민하며 글의 초안을 작성한 후 GPT를 통해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야만 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GPT가 창작 및 글을 작성하는 데 있어 영역별로 수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직접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 방지를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p> <p>가장 좋은 예시로 자기소개서를 영어로 작성하는 과정이 있다. 영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우리는 흔히 이름, 학점, 다양한 정보 등을 입력한 뒤 GPT에 이를 토대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GPT는 이러한 정보만으로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내가 살아온 배경과 생각, 내가 어떠한 경험을 하며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해 작성해주</p>					

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와 같은 글을 작성할 때는 내가 반드시 초안을 작성해야만 한다.

하지만 영어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기에 영어로 글을 작성하였을 때,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GPT의 도움을 받아 내가 쓴 글을 완벽히 만들면 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질문으로는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글의 목적에 맞는 어휘가 사용되었는지, 문장 구조와 흐름이 적절한지, 표현이 너무 비공식적이지 않은지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아래는 이렇게 수정한 나의 자기소개서 일부분이다.

Hello, my name is Hyeon Min. I am currently Junior at Korea Aerospace University, majoring in Electronic Engineering. I have a lot major-related acknowledges and I am good at dealing with the problem. In addition, I have achieved a OPIc grade of IH, so I have superior abilities of communication. Through these acknowledges and my abilities, I am confident that I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emiconductor field.

위와 같이 작성된 초안을 첨부한 후 “In my Self-introduction’s first paragraph, Are there any informal words for introduction? How can I revise them?” 과 같은 질문을 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대답은 다음과 같다.

**Analysis of Informal Words/Phases:**

1. "Hello": It's friendly, but a bit too informal for a formal self-introduction.
2. "a lot": This phrase is informal and can be replaced with more formal phrasing.
3. "acknowledges": This is incorrect here. You probably meant "knowledge."
4. "good at dealing with the problem": "Good at" is too casual; "skilled in" or "proficient in" would be better.
5. "superior abilities of communication": Could be phrased more naturally as "strong communication skills."
6. "I am confident that I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emiconductor field": Can be made more formal by rephrasing for clarity and impact.

이렇게 GPT가 자기소개서에 쓰기에 비공식적인 표현들을 알려주고, 이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또한 말을 해준다. 이렇게 수정한 글을 가지고 이제 적절한 시제와 동사를 사용하였는지 질문하고,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질문하여 총 세 번의 질문을 통해 GPT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완벽한 자기소개서의 첫 문단을 작성할 수 있었다.

(Hello) My name is Hyeon Min, and I am currently a Junior at Korea Aerospace University, majoring in Electronic Engineering. I have extensive knowledge(s) in my field and am proficient in problem-solving. Additionally, I have achieved an OPIc grade of IH, demonstrating strong communication skills. With my skills and background, I am confident that I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emiconductor field.

수정본을 보게 되면, 기존에 내가 작성한 초안보다 자기소개서에 훨씬 적합하고 완성도 높은 문단이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GPT의 도움을 받되, 생각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초안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GPT를 통한 영문 작성법을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초안을 직접 고민하고 작성하는 것이다. <GPT를 통해 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닌, <GPT를 통해 완벽하게 다듬고 개선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항상 가져야만 한다. 완벽한 글을 만드는 과정은 내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GPT에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반복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이다. 이때, GPT의 모든 제안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의도와 맥락에 맞는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GPT를 진정한 학습 도구로 활용해 완성도 높은 영문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 ○ 학습법을 통한 능력향상 정도 또는 기타 영향

이렇게 ChatGPT를 통해 내가 작성한 글을 수정해 나가면서 완벽한 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로 더는 무작정 GPT에 글을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게 되었다. GPT를 못 믿는 것이 아닌, 완벽한 글을 작성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GPT가 제공한 결과물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졌다.

예를 들어 문맥상 알맞지 않은 단어인데 사용하였다든지, 간단한 이메일을 작성하는데 너무 공식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혼자 해결하는 과정이 반복되니, GPT의 도움 없이도 글쓰기의 세부적인 항목을 신경 쓰며 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을 다양한 목적에 맞는 글을 영어로 작성하는 법에 적용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기소개서, resume, Argumentative essay 등 다양한 글을 GPT를 활용하여 영어로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글을 영어로 작성하다 보니, 평소에 한글로도 잘 써보지 않은 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불필요한지 알게 되었고 스스로 글을 개선하고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학습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다양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얻게 된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은 앞으로의 삶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

## ○ 최종 소감

처음에는 <챗GPT와 영어 활용>이라는 강의명만 보고 흥미를 느껴 가볍게 수강하게 된 것이 앞으로 글을 작성하는 데 GPT라는 Tool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하는지 알게 된 것 같아 뿌듯했었다. 그러던 중 마침 AI를 활용한 나만의 공부법을 공유하는 이번 학습 공모전을 접하게 되어 내가 알고 있는 글 작성법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배운 지식을 실천하고 확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두 배의 기쁨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배우고 공유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영광이었고, 이 에세이를 접하는 모든 사람이 글을 쓸 때 나와 같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GPT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대신해주는 만능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기반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더 완벽하게 정리하고 다듬어주는 보완 도구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올바른 활용법을 통해 GPT를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누구나 더 좋은 글을 영어뿐만 아니라 한글로도 글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